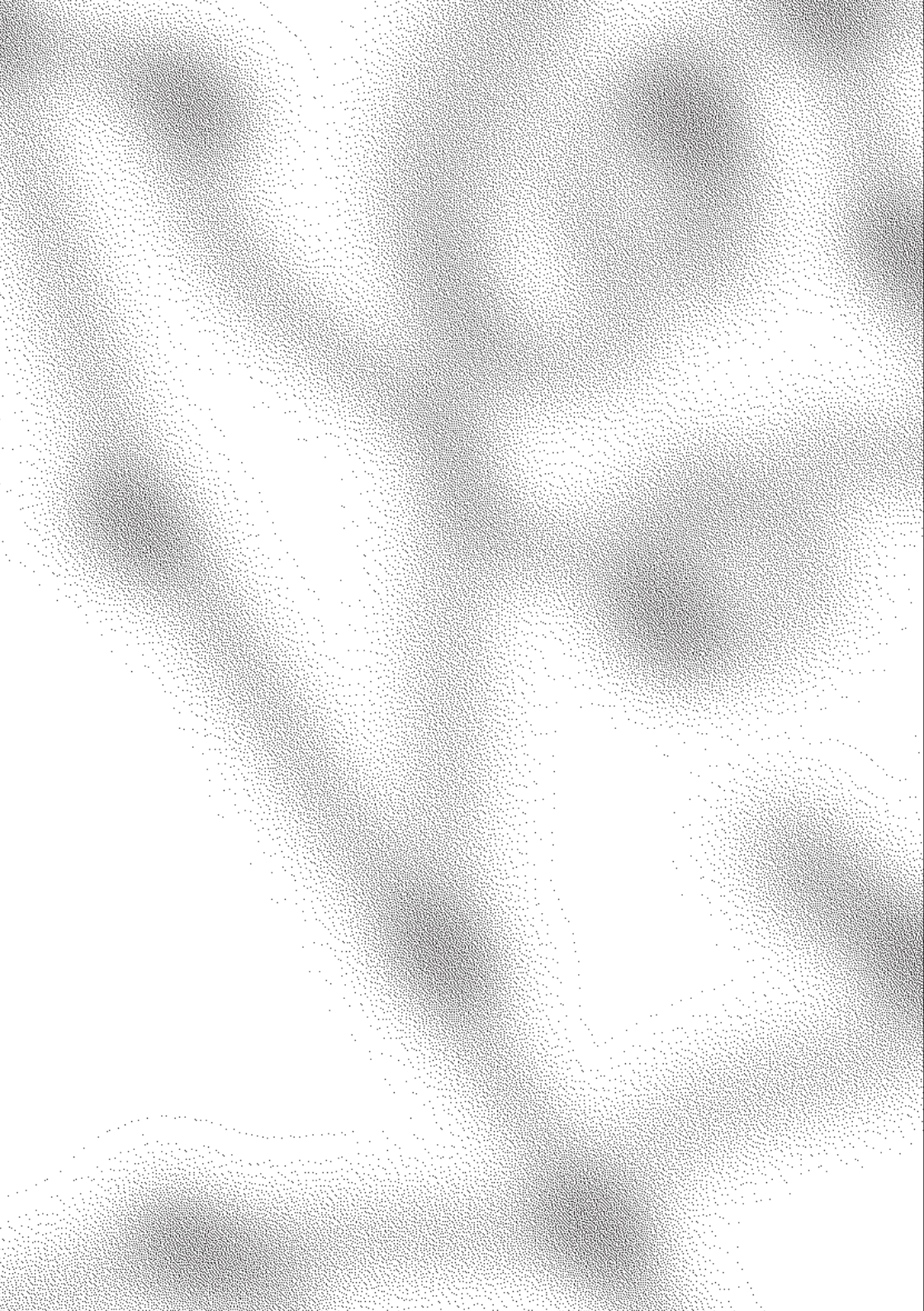




Tongue of Rain

혀 달린 비



5	전시서문 Introduction
10	전시맵 Exhibition Map
11	작품리스트 List of Works
12	작가소개 Artists
18	세실리아 비쿠냐 <소리로 꿈꾼 비: 차학경에 대한 경의> 번역본 The Script for <i>Rain Dreamed by Sound: Homage to Theresa Hak Kyung Cha</i>
24	연계 프로그램 Events

아트선재센터는 세 명의 여성주의 시인 세실리아 비쿠냐, 차학경, 김언희에게 영감을 받은 극장형 전시 <혀 달린 비>를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대를 가로질러 기억의 통로를 뚫어내고, 트라우마와 침묵으로부터 도주선을 발생시키는 시적 발화의 힘을 주목합니다.

극장에 들어서면 칠레 출신 시인이자 미술가 비쿠냐의 비통한 애도가 울려 퍼집니다. 비쿠냐의 <소리로 꿈꾼 비: 차학경에 대한 경의>는 약 20분간 진행되는 사운드 설치 작업으로 차학경의 영혼을 위로하는 비쿠냐의 헌정 시이자 노래입니다. 차학경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언어적 분열과 회복의 과정을 글쓰기와 퍼포먼스, 영상 설치 작업 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차학경은 시이자 소설인 『딕테(DICTEE)』를 발표하고 미국 문화예술계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어처구니없게도 무참히 강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31세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비쿠냐의 ‘비’는 젠더 폭력의 잔존하는 악몽에 파동을 일으키고, 고통받는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의 상징으로 제시됩니다. 멈출 수 없는 비와 같이 비쿠냐는 차학경의 삶과 예술에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칠레와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민 온 비쿠냐와 차학경은 시와 퍼포먼스를 통해 페미니즘, 샴머니즘, 모계적 전통과의 연결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쿠냐와 차학경 사이의 대화는 세대를 넘어 나미라, 제시 천, 차연서로 연결됩니다. 이들은 애도, 시적 발화의 힘, 그리고 언어의 변혁적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비쿠냐의 사운드 작품이 끝나면 무대 뒤 백스테이지에 설치된 나미라의 비디오 작업 <테트라포비아>가 상연됩니다. 이 작업은 차학경의 미완성 필름 <몽골에서 온 하얀 먼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미라의 필름에서 텅 빈 영화관의 관객석을 타고 넘어 무대 위로 등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은 차학경이 <몽골에서 온 하얀 먼지>를 위해 마지막 장면으로 구상한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미라의 목표는 차학경이 끝내지 못한 작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미라는 차학경이 실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방향 가운데 몇 가지를 파편적으로 선택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의 잠재성을 기리고 있습니다. 차학경의 미완성 작품은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버클리 미술관의 협조로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될 예정인 <몽골에서 온 하얀 먼지>는 차학경이 1980년 한국에서 촬영한 필름입니다. 작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완성되지 못하고 유작이 된 이 필름은 일본 식민 통치를 피해 만주로 건너간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바탕으로 만주에 사는 실어증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차학경이 남긴 영상들은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의 흔적들이며, 우리는 이미지의 열개 사이로 그녀가 상상했던 장면들을 함께 상상해야 합니다.

비쿠냐의 사운드 작품과 나미라의 비디오 작품 사이에 설치된 제시 천의 <탈언어화의 악보(천지문 and Cosmos, no. 042823)>는 드로잉 설치 작업입니다. 작가는 지배적 언어인 영어의 의미체계를 분열시키고 추상화하기 위해 스텐실(stencil) 기법을 이용해 로마 알파벳을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추상적 언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천장에 매달린 네 개의 프레임의 형태로 인해 중앙에 원 형태의 빈 공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네거티브 형상과 추상 악보는 한국 민속춤 소리의 재해석을 통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미 전달의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언어의 한계점에서 마주하는 것은 언어와 몸의 분리불가능성입니다. 김언희 시인의 표현에서 빌린 “혀 달린”이라는 시적 표현은 신체 기관이자 언어를 발생시키는 통로로서 혀의 이중적 존재성을 강조하고, 시 언어에 내재한 몸/감각을 발화시키는 트리거로 작동합니다. 차연서의 <축제>는 법의부검 자료에서 바라본 무연고의 몸을 가위질로 필사하는 다큐이 콜라주입니다. 작가는 아버지의 유품으로 남겨진 채색된 다큐이를 잘라 유기된 몸을 그리는 창작 과정이 마치 아버지의 몸을 죽은 자들에게 공양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천도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차연서가 만들어 내는 제의의 공간은 이 전시를 관통하며, 예술이 죽음과 상실에 대한 치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혀 달린 비»는 시적 발화의 치유의 힘과 혀의 저항의 힘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제의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비와 같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목소리가 없었던 자들의 몸/감각을 기억해 내고자 합니다. 세실리아 비쿠냐, 차학경, 나미라, 제시 천, 차연서가 보여주는 세대를 초월한 대화와 소통의 통로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억의 힘을 발견합니다.

Tongue of Rain is a gray zone exhibition that explores the power of poetic utterances, drawing inspiration from three feminist poets Cecilia Vicuña, Theresa Hak Kyung Cha, and Kim Eon Hee. It employs the symbol of rain and tongue to illuminate the profound impact of poetic language, which pierces through the corridors of memory across generations.

Upon entering the theater, Vicuña's heartfelt elegy to Cha, *Rain Dreamed by Sound: Homage to Theresa Hak Kyung Cha*, echoes for about 20 minutes. The Korean-American writer and artist Cha was raped and murdered in New York shortly after publishing her novel *DICTEE* in 1982. Vicuña felt an unstoppable connection to Cha, akin to the relentless force of rain. In Vicuña's elegy, rain symbolizes the force that reverberates the enduring nightmares of gender violence and revitalizes the souls of the afflicted. Both Vicuña and Cha, immigrants from Chile and Korea to New York, embrace poetry and performance, forging connections with feminism, shamanism, and maternal traditions. The dialogue between Vicuña and Cha extends across generations, linking Na Mira, Jesse Chun, and Cha Yeonså, delving into the themes of mourning, the enduring spirit of poetry, and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language.

After Vicuña's sound piece concludes, Mira's video installation, *TETRAPHOBIA*, unfolds on the backstage of the theater space. Inspired by Cha's unfinished film, *White Dust from Mongolia*, Mira's work selectively incorporates elements envisioned by Cha for the film. The goal, however, is not to complete Cha's unfinished work but to honor the potentiality of what was left unfulfilled. Cha's incomplete work serves as a conduit for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Introduc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through collaboration with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White Dust from Mongolia* invites our imaginative contributions, as this film was never completed due to Cha's sudden death. What we see are fragments of images that Cha captured in Korea in 1980. The inten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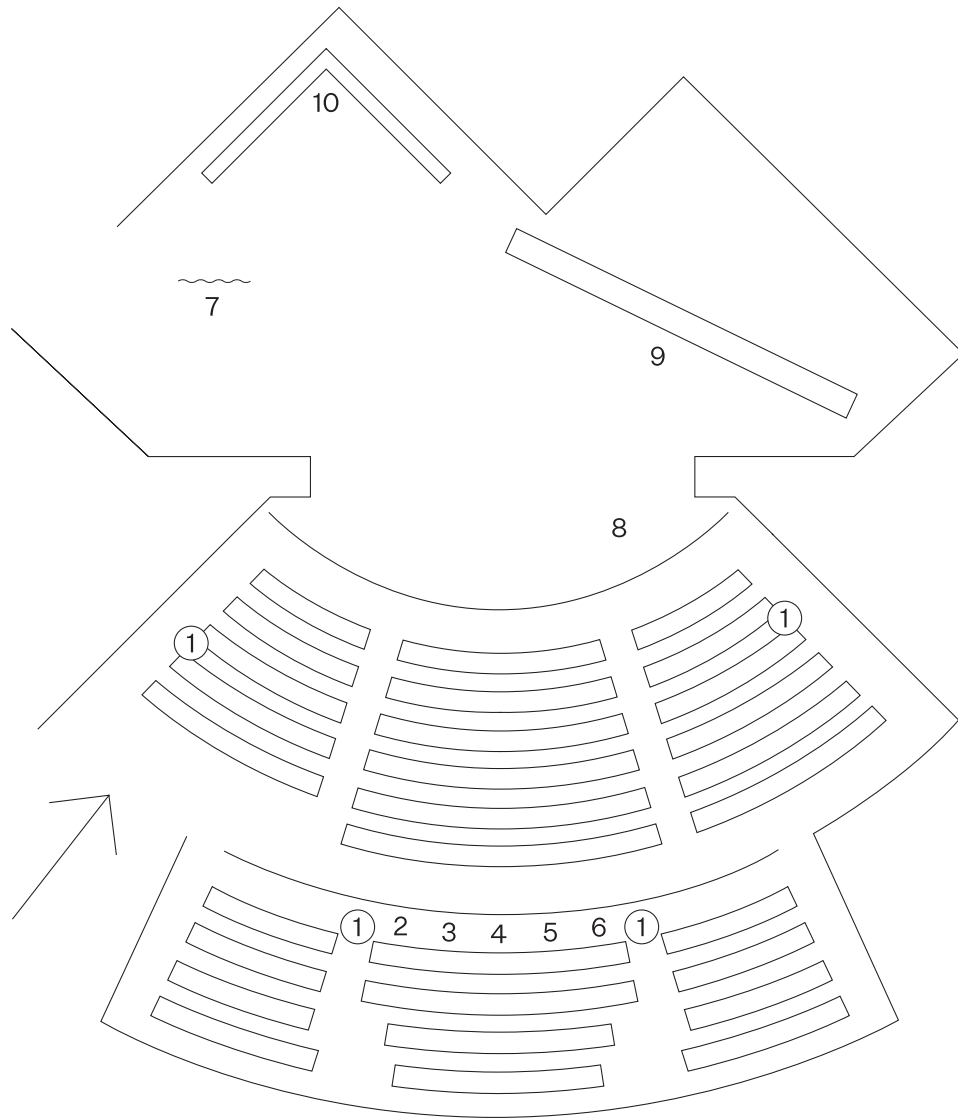
story revolves around a woman who loses her memory and ability to speak, reflecting the experiences of Cha's own grandmother and mother who escaped Japanese colonial rule to live in Manchuria.

Between Vicuña's sound piece and Mira's video work lies Chun's installation *Score for Unlanguaging* (천지문 and cosmos; no.042723). This drawing installation fragments and abstracts the semantic system of the world's most dominant language, English, transforming the Roman alphabets into Chun's own abstraction. In the process of "unlanguaging", Chun maps other cosmologies of language. The abstract scores will be activated through a collaborative performance that reinterprets Korean folk dance and sound.

Encountering the limitations of language leads to a new perception of the body. The poetic expression of "혀 달린 (literally translated as tongue-tied)", borrowed from Kim Eon Hee, operates as a trigger to articulate the body/senses embedded in poetic language. The existential doubleness of tongue as a physical organ as well as the portal of language, challenges dichotomous perceptions of the body and language.

Cha Yeonså's *Festival* restores dead bodies without known connections from forensic records. Presented as a collage with bark paper, the artist transcribes the dead bodies using the techniques of paper cuttings. Utilizing bark paper from her deceased father's mementos, the artist felt like engaging in a form of offering, akin to a memorial ritual. This ritualistic space permeates the exhibition, exploring the potential of art to play a healing role in the face of death and loss.

Tongue of Rain proposes itself as a ritual space for restoring memory, through which the healing power of poetic utterances and the resistance of the tongue comes together. In this space for memory, the bodies/senses of marginalized voices are revitalized much like the unstoppable force of rain. The power of memory manifests vividly through the dialogues woven by Cecilia Vicuña, Theresa Hak Kyung Cha, Na Mira, Jesse Chun, and Cha Yeonså.



1 세실리아 비쿠냐(시/목소리)와 리카르도 갈로(작곡/피아노), <소리로 꿈꾼 비: 차학경에 대한 경의>, 2021. 4채널 사운드 설치, 20분 56초. <마인즈 라이징, 스피리츠 튜닝>, 제 13회 광주비엔날레 커미션. 예술감독: 데프네 아야스, 나타샤 진왈라 ©세실리아 비쿠냐, 일렉트로닉 아트 인터믹스(EAI), 뉴욕

2 차연서, <축제 23 #9; 수문지기>, 2023. 페이퍼컷 콜라주(닥종이에 채색, 차동하), 79×64cm ©차연서

3 차연서, <축제 23 #3-2; 딱두꺼비 손목>, 2023. 페이퍼컷 콜라주(닥종이에 채색, 차동하), 77×57cm ©차연서

4 차연서, <축제 23 #3-1; 세빛 달도>, 2023. 페이퍼컷 콜라주(닥종이에 채색, 차동하), 77×57cm ©차연서

5 차연서, <축제 23 #4; 개가 된 여자>, 2023. 페이퍼컷 콜라주(닥종이에 채색, 차동하), 77×105cm ©차연서

6 차연서, <축제 23 #1; 꽃다발을 든 아이>, 2023. 페이퍼컷 콜라주(닥종이에 채색, 차동하), 110×90cm ©차연서

7 차연서, <축제 23 #8; 엉덩이 커튼>, 2023. 페이퍼컷 콜라주(닥종이에 채색, 차동하), 75×105cm ©차연서

8 제시 천, <탈언어화의 악보(천지문 and cosmos, no.042823)>, 2023. 흑연, 벨렘 종이, 피그먼트, 핀, 4개의 아티스트 프레임, 각 38×28cm ©제시 천, 미국 볼룸 마파

9 차학경, <몽골에서 온 하얀 먼지>, 1980. 16mm, 30분 ©버클리 미술관 & 태평양 영화 보관소, 차학경기념재단 기증

10 나미라, <테트라포비아>, 2022. 2채널 16mm 필름 변환, 적외선 HD 흑백 비디오, 소리, 거울, 20분 24초 연속재생 ©나미라, 폴 소토

1 Cecilia Vicuña (poem/voice) and Ricardo Gallo (4 channel composition/piano), *Rain Dreamed by Sound: Homage to Theresa Hak Kyung Cha*, 2021. 4-channel sound installation; 20min 56 sec. *Minds Rising, Spirits Tuning*, the 13th Gwangju Biennale. Artistic directors: Defne Ayas and Natasha Ginwala ©Cecilia Vicuña, Electronic Arts Intermix (EAI), New York

2 Cha Yeonsâ, *Festival 23 #9; Watergate*, 2023. Papercut Collage (Color on Dak Paper; Cha Dongha), 79×64cm ©Cha Yeonsâ

3 Cha Yeonsâ, *Festival 23 #3-2; Toad*, 2023. Papercut Collage (Color on Dak Paper; Cha Dongha), 77×57cm ©Cha Yeonsâ

4 Cha Yeonsâ, *Festival 23 #3-1 Dildo*, 2023. Papercut Collage (Color on Dak Paper; Cha Dongha), 77×57cm ©Cha Yeonsâ

5 Cha Yeonsâ, *Festival 23 #4; Dog*, 2023. Papercut Collage (Color on Dak Paper; Cha Dongha), 77×105cm ©Cha Yeonsâ

6 Cha Yeonsâ, *Festival 23 #1; Bouquet*, 2023. Papercut Collage (Color on Dak Paper; Cha Dongha), 110×90cm ©Cha Yeonsâ

7 Cha Yeonsâ, *Festival 23 #8; Curtain*, 2023. Papercut Collage (Color on Dak Paper; Cha Dongha), 75×105cm ©Cha Yeonsâ

8 Jesse Chun, *Score for unlanguageing (천지문 and cosmos, no.042823)*, 2023. Graphite, vellum paper, pigment, pins, 4 artist frames, 38×28cm each ©Jesse Chun and Ballroom Marfa, US

9 Theresa Hak Kyung Cha, *White Dust From Mongolia* (film), 1980. 16mm, 30 min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Gift of the Theresa Hak Kyung Cha Memorial Foundation

10 Na Mira, *TETRAPHOBIA*, 2022. 2-channel 16mm film transfer and infrared HD video, black and white, sound, mirror, 20min 24sec, looped ©Na Mira, Paul Soto

세실리아 비쿠냐 (b. 1948)

세실리아 비쿠냐는 뉴욕과 산티아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시인이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후 칠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배경에 영향을 받아 덧없음에 대한 정서 그리고 칠레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경심과 이를 지키려는 열망을 작업으로 드러냈다. 그녀의 작업들은 에코 페미니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생태계 파괴, 문화 동질화, 경제적 격차 등 현대 사회의 주요 쟁점을 반영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배척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한다.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2022) 황금사자상과 스페인 문화부가 스페인과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 출신의 작가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미술상인 벨라스케스시각예술상(2019)을 수상했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2022), 런던 테이트모던(2022), 노스마이에미현대미술관(2019), 뉴욕 브루클린뮤지엄(2018), 보스턴미술관(2018), 뉴올리언스현대미술센터(2017) 등 다수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내에서는 리만머핀 서울(2021), 제13회 광주비엔날레(2021) 등에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차연서 (b. 1997)

차연서는 평면 연작 <축제>를 통해 무연고자들, 벌레들, 시어들을 자르고 그리며 그들이 매달릴 자리를 마련한다. 끝장난 다음에도 끝나지 않는 끝, 그 안에 허물어진 마침표들을 응시하는 과정을 통해 저리고 가위눌리고 열리는 몸(들)을 돌본다. 그동안 몸과 컴퓨터가 연루된 작업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개발하며 온라인 개인전 «이 기막힌 잠»(에너지후이쉬게임즈, 2023), 협력적 개인전 «Every mosquito feels the same (모든 모기들도 똑같이 느낄 거야)»(TINC, 2022), 라이브 퍼포먼스 «Mosquitolarvajuice (모스키토라바쥬스)»(레스601 선, 2022), 그리고 게임 «3 Households (쓰리하우스홀즈)»(Steam, 2022)를 발표했다.

제시 천 (b.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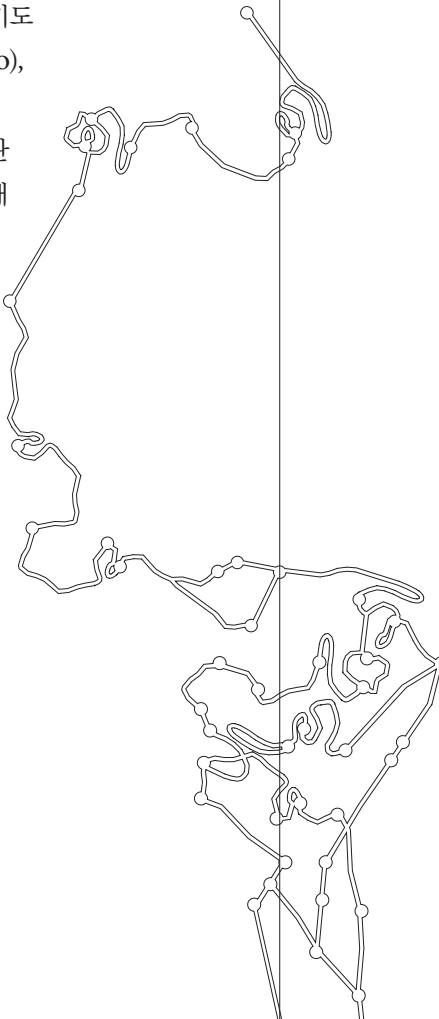
제시 천은 뉴욕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단편 영화, 드로잉, 조각 및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미, 시간 그리고 번역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다른 해석 방법과 철학을 환기시키는 언어에 대해 탐구한다. LA 커먼웰스엔카운슬(2024),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23), 런던 화이트채플갤러리(2023), 토론토현대미술관(2021,2020), 백남준아트센터(2020), 뉴욕 조각센터(2020), 뉴욕 드로잉센터(2019) 등 여러 지역에서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도서관, 워싱턴 D.C. 스미소니언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서관 등 주요 기관 컬렉션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나미라 (b. 1982)

나미라는 인식의 가장자리에서 작업한다. 작가의 영상, 영화, 그리고 조각은 애니메이션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제작 장치를 부차연스럽게 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건축과 현상학에서 착안하여, 나미라의 현장 반응형 설치작품은 표현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투손 현대미술관(2023), LA 폴소토(2023), 비엔나 크로이넬슨(2023), 뉴욕 컴퍼니갤러리(2022), 미네소타 미드웨이현대미술관(2022)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LA현대미술관(2024), 쿤스트할레취리히(2024),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2024), 리얼DMZ프로젝트(2023), 휘트니비엔날레(2022)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차학경 (1951-1982)

차학경은 한국에서 태어난 재미 예술가로 1982년 31세로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산과 상실에 관한 주제로 시, 퍼포먼스,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녀의 작업은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여러 종교적 관점이 깃든 문화적이고 상징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은 그녀의 작품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반복, 조작, 축소, 고립을 통한 언어 실험을 통해 언어가 어떻게 불안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지 탐구했다. 차학경이 남긴 작업은 후대 아시아계 작가와 예술가, 연구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40년 만에 미국 뉴욕타임스 뒤늦은 부고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휘트니비엔날레(2022), 뉴욕 아티스트스페이스(2020), 브롱크스미술관(2003), 휘트니미술관(1993) 등에서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UC 버클리 미술관 & 태평양 영화 보관소에서 회고전이 개최된 후 세계 다섯 개 도시에서 순회되었다.



Cecilia Vicuña (b. 1948)

Cecilia Vicuña is a Chilean poet and artist based in New York and Santiago. After studying in the UK, she was unable to return to her homeland due to a military coup in Chile. This unexpected incident influenced her emotional response to impermanence, paying respect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Chilean indigenous people, as well as her desire to preserve them through her work. She reflects on major contemporary issues such as ecological destruction, cultural homogenization, and economic disparity, linked to ecofeminis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way in which such phenomena disenfranchise the already powerless. She was a recipient of the Golden Lions for Lifetime Achievement of the 59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of La Biennale di Venezia (2022), Premio Velázquez de Artes Plásticas (2019), Spain's most prominent art award and given out by the Spanish Ministry of Culture to an artist based in the country or from the Ibero-American Community of Nations. Her solo exhibitions were organized by major institutions including Tate Modern, London (2022);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2022); Centro de Arte Dos de Mayo, Madrid (2021); CCA Wattis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San Francisco (2020); Kunstinstituut Melly Rotterdam, the Netherlands (2019).

Cha Yeonså (b.1997)

Through the recent drawing series *Festival*, Cha Yeonså cuts and draws unclaimed bodies, bugs, and poetic words, and prepares the places for them to hang. The process of gazing at the ends that never end and the broken periods within them takes care of the body(s) that is numb, nightmare-seized, and open. So far, planning, producing, and developing different works that involve bodies and computers, Cha has presented the online solo exhibition *This Unbelievable Sleep*, *Energywhoisshe Games* (2023); the collaborative solo exhibition *Every mosquito feels the same*, *This is not a church* (2022); the live performance *Mosquitolarvajuice*, *Les601 Seonyu* (2022) and the game *3 Households*, *Steam* (2022).

Jesse Chun (b.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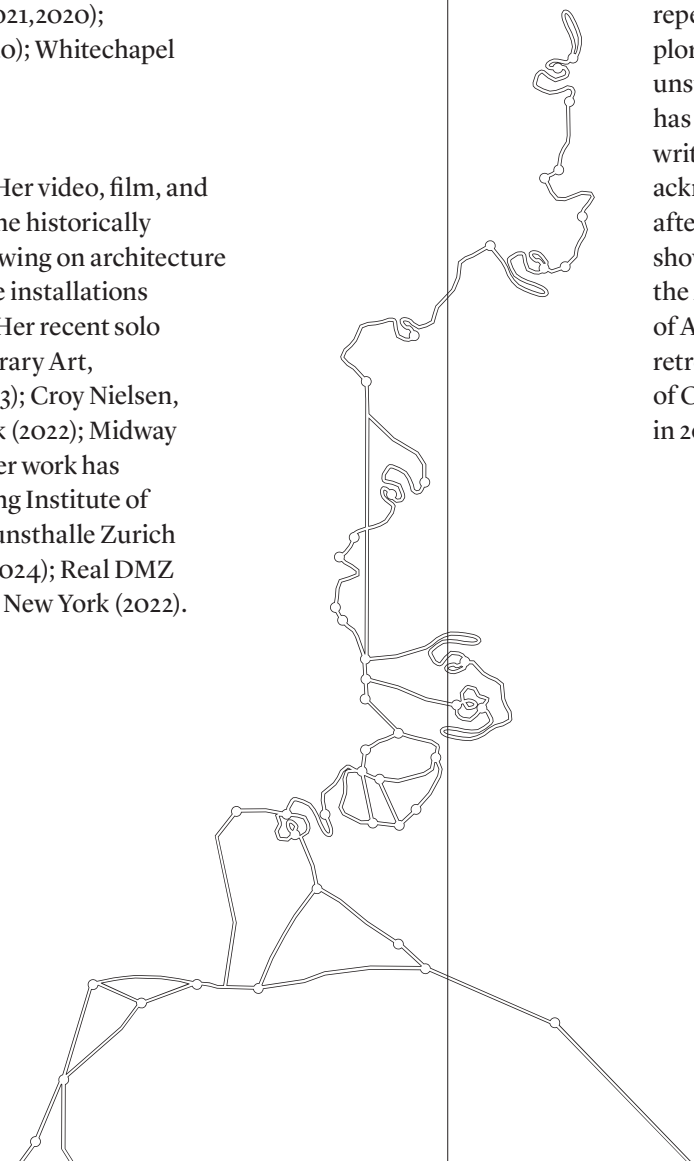
Jesse Chun is an artist living and working between New York and Seoul. Chun's immersive poetics in moving image, drawing, sculpture, and installation address language-evoking alternate semiotics and cosmologies of meaning, time, and the untranslatable. Chun's forthcoming and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Commonwealth and Council, Los Angeles (2024) and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2023). Chun's work has been presented at Sculpture Center, New York (2022); The Drawing Center, New York (2020);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ronto (2021, 2020);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2020); Whitechapel Gallery, London (2023), among others.

Na Mira (b. 1982)

Na Mira works at the edges of perception. Her video, film, and sculpture allow animism to denaturalize the historically produced apparatus of image making. Drawing on architecture and phenomenology, Mira's site responsive installations open a dimension beyond representation. Her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ucson (2023); Paul Soto, Los Angeles (2023); Croy Nielsen, Vienna (2023); Company Gallery, New York (2022); Midway Contemporary Art, Minneapolis (2022). Her work has been featur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2024); Kunsthalle Zurich (2024); the 60th Venice Biennial, Venice (2024); Real DMZ Project, Paju (2023); and Whitney Biennial, New York (2022).

Theresa Hak Kyung Cha (1951–1982)

Theresa Hak Kyung Cha was an American novelist, producer, director and artist of South Korean origin. She created a rich body of conceptual art that explored displacement and loss. Her works included poetry, performance, film, and installation. Her art was informed by far-ranging cultural and symbolic references from various religious perspectives, which was grounded in French psychoanalytic film theory. As an Asian immigrant, her identity deeply permeates her works. Cha's practice experiments with language through repetition, manipulation, reduction, and isolation, exploring the ways in which language marks one's identity, in unstable and multiple expressions. Cha's body of works has profoundly influenced subsequent Asian-American writers, artists and researchers. Her tragic death was belatedly acknowledged in a New York Times obituary, 40 years after, underlining her lasting impact. Her work has been shown at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2022); the Artists Space, New York (2020); and the Bronx Museum of Art, New York (2003) among other venues. A major retrospective exhibition of her work was organized b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in 2001, and traveled to five cities.



Cecilia Vicuña (세실리아 비쿠냐),
Rain Dreamed by Sound: Homage to Theresa Hak Kyung Cha
〈소리로 꿈꾼 비: 차학경에 대한 경의〉, 2021

Part 1

Rain Dreamed by Sound
소리로 꿈꾼 비

A cloudy, foggy reading of her matrix
직조한 모체를 구름, 안개 헤치듯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Rain forming in me.
내 안에 비가 만들어졌다.

Rain call Her by Sound.
비가 그녀를 소리로 부른다.

Rain comes to a thirsty, dry land.
비가 목 마른, 메마른 땅에 내린다.

Rain of Memory
A dictation coming from nowhere, the place where
exiles dwell.
‘기억’이라는 ‘비’
아무 데도 없는 곳, 망명자들이 사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받아쓰면서.

The longing of return.
귀환에 대한 갈망.

The tongue that is forbidden is your own mother tongue.
금지된 언어가 바로 네 자신의 모국어.

It murmurs inside. It murmurs.
It murmurs inside the pain of speech the pain to say.
그것이 속에서 중얼거린다. 중얼거린다.
말한다는 것의 고통 속에서 말하는 것의 고통.

She allows others. In place of her.
Admits others to make full. Make swarm.
그녀는 다른 이들을 들였다. 그녀의 장소에.
다른 이들이 가득 차도록 했다. 폐를 짓도록.

She waits inside the pause. Inside her.
그녀는 잠시 멈춘 순간 속에 머물렀다. 그녀 안에서.

She waits to service this.
그녀는 이를 전하고자 기다렸다.

She asks the muses to be the speakers, to help in
The pause. Uttering. Hers now. Hers bare. The utter.
그리고 그녀는 그 뮤즈들에게 화자가 돼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잠시 멈춘 순간. 소리 내기. 지금 그녀의 것.
적나라한 그녀의 것.
그 소리 안에서.

Part 2

“Mother” she said,
“어머니”라고 그녀는 말했다.
“Mother, the first sound” she said,
and she was murdered,
“어머니, 첫 번째 소리”라고 말했고,
그녀는 살해당했다.

As if speaking thus, naming the mother, she was
endangering herself.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어머니를 부르며, 그녀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It is not allowed. The truth is not allowed. Truth not allowed.
진실은 용납되지 않는다. 진실은 용납되지 않는다.

I heard her in the murmur of hands receiving her card saying
나는 그녀를 들었다. 그녀가 이렇게 적은 종이를 건네받는
중얼거림 와중에.
Distant Relative
먼 친척

I heard her falling as a white stone on a pool of light reflecting
the stars.
나는 그녀가 추락하는 걸 들었다. 별 빛에 빛나는 물 위로 던져진
하얀 돌처럼.

I heard her drowning, like a refugee while being raped.

나는 그녀가 익사하는 걸 들었다. 강간을 당하는 한 난민처럼.

I heard her listening for the rustle of shadows not there,
나는 들었다. 그녀가 그곳에 있지 않은 그림자들의 바스락거림을
듣고 있는 것을.

I heard her as a distant relative coming home to nothingness,
나는 들었다. 아무 것도 없는 집으로 돌아오는 먼 친척 같은
그녀를.

The cry of all raped women
모든 강간당한 여인들의 비명

The cry that was becoming a wave, a wave of sorrow asking
us to stop the next crime.
파도가, 다음 범죄를 멈춰 달라 애원하는 비애의 파도가 돼 가던
비명.

Part 3

You are the audience
you are my distant audience
I address you
as I would a distant relative
as if a distant relative
seen only, heard only through someone else's description,
당신은 관객이다
당신은 멀리 떨어진 나의 관객이다

나는 당신을 부른다
마치 한 먼 친척
누군가가 설명해줘서 겨우 들어본 적, 본 적 있는.

Distance created the ocean for us to swim towards each
other,
to swim till we meet en el mar de penurias, el mar del dolor,
the sea of sadness, ocean of pain.
간극은 우리가 서로에게 닿으려 헤엄치도록 대양만치 벌어졌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 슬픔의 바다, 고통의 대양에서
만날 때까지 헤엄치도록.

The present reveals the missing. The absent.
존재는 없어진 것을 드러낸다. 부재.

The remnant is the whole.
남은 것이 전체다.

Fire over water, said the I Ching hexagram.
물 위의 불, 주역 점괘가 말했다.

Wei Chi,
Before completion,
웨이 치.
완성 전.

Our eyes drown without tears
Our eyes not wanting to see us
as distant relatives

to the trees and streams
to the ocean and to each other
Not wanting to see us as refugees,
눈물 없이 흠뻑 젖은 우리의 눈
우리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눈
먼 친척들처럼
나무에게로, 개울로
바다로, 서로에게로
우리를 난민으로 보고 싶지 않은 이들처럼.

전시 연계 프로그램

[ASJC 리딩리스트] «혀 달린 비» 읽기 모임

[ASJC 리딩리스트]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발생한 큐레이터의 리딩리스트 중 일부를 공유하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 읽기를 제안하는 모임입니다. 관련 연구자들을 초대해 텍스트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시 기획 단계에서 마주하는 문학, 철학, 비평 텍스트를 통해 전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차학경 『딕테』

텍스트 소개: 김지승

2024. 3. 14. (목) 19:00-20:30

2. 캐시 박 흥 『마이너 필링스』

텍스트 소개: 성정혜

2024. 3. 21. (목) 19:00-20:30

3. 김언희 『보고 싶은 오빠』, 『트렁크』, 『말라죽은 앵두나무 아래 잠자는 저 여자』 등

텍스트 소개: 양효실

2024. 3. 28. (목) 19:00-20:30

4. 안드레아 룡 추 『피메일스』

텍스트 소개: 이연숙

2024. 4. 11. (목) 19:00-20:30

«혀 달린 비» Activation Day

시간-특정적으로 전시를 활성화(activation)하는 이벤트로 제시 천 × 연희 (김향수리, 안유희)가 기획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의 영감을 주었던 김언희 시인에 대한 유사-비평서 『미친, 사랑의 노래』에 대한 북토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 4. 25. (목) 18:00-21:00

18:00-18:20 세실리아 비쿠냐 <소리로 꿈꾼 비:차학경에 대한 경의> 재생

18:00-18:30 차학경 <몽골에서 온 하얀 먼지> 상영

18:20-18:40 나미라 <테트라포비아> 상영

18:40-19:00 제시 천 × 연희 (김향수리, 안유희) 퍼포먼스

19:00-20:00 북토크 1부

20:00-20:20 휴식

20:20-21:00 북토크 2부

퍼포먼스 개요

<탈언어화의 악보 (천지문 and cosmos)>: 활성 퍼포먼스

아티스트: 제시 천 × 연희 (김향수리, 안유희)

비주얼 아티스트 제시 천과 한국 민속 퍼포먼스 아티스트 연희 (김향수리, 안유희)가 제시 천 작가의 드로잉 설치 작품인 <탈언어화의 악보 (천지문 and cosmos)>를 활성화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지배적인 언어인 영어와 그 기호학적 의미 체계를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시각화하는 제시 천의 추상적인 악보를 소리, 무용, 그리고 목소리로 표현합니다. 연희와 제시 천이 함께 안무를 구상한

이번 퍼포먼스는 한국 민속 춤과 소리를 재해석하여 의미와 시간, 그리고 번역할 수 없는 시언어를 소환합니다.

북토크 개요

〈살, 시, 똥: 김언희 유사-비평집

『미친, 사랑의 노래』 북토크〉

기획/진행: 이연숙(리타)

패널: 『미친, 사랑의 노래』 필진 중 7인(밀사, 박수연, 성훈, 영이, 진송, 한초원, 홍지영)

기존의 비평 언어로는 온전히 포착할 수 없었던 김언희의 시적 세계를 여성, 퀴어, 예술가의 눈을 통해 재해석하고 전유하는 ‘유사-비평’의 실험을 담은 책 『미친, 사랑의 노래』 필진들이 참여하는 북토크 행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비평’이란 김언희의 시적 세계가 개방하는 전위적 부정성을 텍스트 분석만이 아닌 시각적, 감각적 언어로 접근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번 대화는 “살, 시, 똥”이라는 제목 아래 『미친, 사랑의 노래』에 실린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극단적 물질성’에 대한 탐구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김언희의 시적 세계를 각자의 방식으로 재발견할 수 있기를, 더불어 12인의 필진이 참여한 책 『미친, 사랑의 노래』 역시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혀 달린 비
2024. 4. 4. - 2024. 5. 5.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B1F)

기획 문지윤(아트선재센터 프로젝트 디렉터)
진행 남서원(아트선재센터 전시 코디네이터)
주최 아트선재센터
협력 버클리 미술관 & 태평양 영화 보관소

Special thanks to
세실리아 비쿠냐
김연희
김혜정
김선정
차학경
우슬라 데빌라
빅토리아 성

글 문지윤
편집 남서원, 유승아
디자인 박유빈

© 2024. 저자,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아트선재센터
관장 김장언
예술감독 김선정
프로젝트 디렉터 문지윤
전시팀장 조희현
레지스트라 천수원
코디네이터 남서원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 이예인
운영지원팀장 이미선
에듀케이터 김현미
인턴 유승아, 정해린
시설관리부 황우석, 문현성, 윤재일

아트선재센터 후원위원회
강익숙, 김미셀, 김상범, 김정완, 방혜신,
이정은, 조성숙, 홍미경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82 2 733 8949
F. +82 2 733 8377
W. www.artsonje.org

A SJ C

Tongue of Rain
April 4, 2024 - May 5, 2024
Art Hall (B1F), Art Sonje Center

Curated by Je Yun Moon
(Project Director, Art Sonje Center)
Assisted by Seowon Nam
(Exhibition Coordinator, Art Sonje Center)
Organized by Art Sonje Center
In collaboration with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Special thanks to
Cecilia Vicuña
Eon Hee Kim
Hye Jeong Kim
Sunjung Kim
Theresa Hak Kyung Cha
Ursula Davila
Victoria Sung

Text Je Yun Moon
Editing Seowon Nam, Seunga You
Design Yubin Park

© 2024. Authors, Art Sonje Center.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copyright
holders and publishers.

Art Sonje Center
Director Jang Un Kim
Artistic Director Sunjung Kim
Project Director Je Yun Moon
Head of Exhibitions Heehyun Cho
Registrar Clara Suwon Chun
Coordinator Seowon Nam
Curatorial Assistant Yein Lee
Head of Operations Misun Lee
Educator Hyeonmi Kim
Intern Seunga You, Haerin Jung
Facilities Management Division Hwang Woosuk,
Hyun Sung Moon, Jae Il Yun

ASJC Patrons
Euisouk Kang, Kim Michelle, Sangbeom Kim,
Jung Wan Kim, Bang Haeshin, Lee Jung Eun,
Sung Sook Cho, Hong Mikyung

Art Sonje Center
87 Yulgok-ro 3-gil, Jongno-gu,
Seoul, South Korea 03062
T. +82 2 733 8949
F. +82 2 733 8377
W. www.artsonje.org

A SJ C

